도서관 이전 후 공간 용도논란

공대학생회 "학교측과 지속적 협의 가질 것"

수원캠퍼스 도서관 이전에 따른 공과대학 유휴공간 사용 문제가 학교와 학생간의 의견차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학장 및 교수들과 방학중 네차례의 모임을 가졌던 공과대학학생회는 "도서관 유휴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학생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및 서명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히면서 도서관 유휴공간을 열람실, PC실, 휴게실, 전공및 교양도서 열람공간 등으로 사용할 것을 학교측에 건의했고 학교측은 부족한 강의실을 보충하기 위해 도서관의 유휴공간을 세미나실, 강의실로 용도변경한 것을 학생들에게 내세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도서관 완공에 따라 생기는 공과대학의 유휴공간은 도서관 및 전산소 등이다.

학생측은 교수들이 제시한 도서관 유휴공간의 강의실 용도변경에 대해 "전산소가 이전했을 경우 생기는 공간을 강의실 및 실험실로 사용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은 "전산소가 이전하려면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전산소 문제의 거론을 자제하자"며 전산소 유휴공간 사용문제에 대한 논의를 연기하고 있다.

공과대학 학생회는 "도서관 이전시기에 맞춰 공간을 재조정하기 위해 학교측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학생측 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일반 학생들의 공개투표를 통해 여기서 나온 결정 사항에 따라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연과학대학(이하·자과대)공간문제도 김정현학장(환경학과)의 정년퇴임으로 신임학장과의 업무 이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결에 다소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학생측은 '지난 93년 학의서의 내용에 따라 94년 상반기에 공사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와 이후 공간문제 해결을 위한 학교측의 답변'을 묻는 질의서를 교무과로 보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임명제 학우돕기 모금

지난 8일 서울캠퍼스 동아리연합회는 학생회관 로비에서 창작분과장 임명제(행정·4)군의 쾌유를 위한 1일 찻집을 열어 모금활동을 벌였다.

임군은 지난 범민족대회 참가도중 페퍼포그차에 깔려 폐와 얼굴 부위가 크게 다쳤었다.

한편 1일 찻집에서 얻은 수익금은 임군의 퇴원선물 등의 마련에 쓰일 것이며, 총학생회는 학교측과 최종치료비문제로 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제194회 최 용 제

도서관 완공기념 경희 대축전 계획

수원총학 2학기 중점사업 진행

수원총학생회는 도서관과 대학문화거리 완공기념 경희 대축전 사업 등을 중심으로 2학기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총학생회는 '계속적인 혁신사업으로 일만이 참여하고 주인되는 대중기획사업의 정형을 마련하고 기간의 학자투쟁의 성과를 학우들과 함께 공유하여 일만의 대단결을 실현하고 새 세기를 예비하는 민족대학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등의 내용을 중심기조로 의식화, 조직화, 투쟁, 일상기획사업 등의 각 영역별 구체적 목표를 세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총학생회의 9·10월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16일까지를 개강사업주간으로 정해 개강총회 등을 통해 상반기 학생회 사업에 대한 보고와 하반기 사업에 대한 준비를 마무리 짓고 오는 13일 공안탄압분쇄를 위한 학내집회와 대축전 준비위원회 발족식,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대중 강연회 등을 예정하고 있다.또한 오늘 21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를 경희대축전 준비 및 축전 행사기간으로 정해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단대별 체전 예선을 치루고 다음달 4일 체전 결승과 영산줄다리기 축전 개막식, 5일 도서관 개관식 및 총학생회 진군식, 6일 과·단대 행사의 날, 7일 도서관 기념비 제막식 및 본행사 폐막식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다음달 8일부터는 경희 대축전사업의 대중적인 평가와 조직화 주력 그리고 하반기 사업을 정리하는 기간을 가질 계획이다.

국보법 철폐등 하반기 방향 수립

제1회 경인총련 간부대회

경기인천지구총학생회연합(이하·경인총련)은 지난 9일 오후1시 우리학교 수원캠퍼스 학생회관 열람실에서 '제1회 간부대회'를 갖고 94년 상반기 학원자주화(이하·학자)투쟁에 대한 사업보고와 하반기 간부사업 및 이후 통일투쟁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전경의 학원 진입이 우려되어 하루 앞당겨 행사를 끝낸 각 학교 간부들은 하반기 사업의 지침을 '공안정국의 타개와 통일을 위한 대중사업전개로 중지를 모으고 공안탄압분쇄 및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여 정권 김진구도에 파열구를 열것'을 결정했다.

하반기 사업지침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을 위한 대중사업 전개를 위한 정책적 과제로 △연방제 통일방안의 확산 △국가보안법의 철폐 △정상회담의 실현 △평화협정의 체결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위한 투쟁을 전개하며, 조직적 과제로 △조국통일위원회의 통일투쟁을 위한 정형을 마련하고, 대중운동과제로 △북한바로알기 운동의 전개를 결정했다.

또한 하반기 학자투쟁 논의에서는 상반기의 학자투쟁을 "간부들이 국내 정세를 총체적으로 보지 못하여 학자사업과 수업개방 저지투쟁을 분리시켜 사고하고 자기계획을 뚜렷이 하지 못해 조직화의 내용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평가하고 하반기 사업의 방향을 ①각 학교의 주,객관적인 조건을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의 근거를 갖고 승리하는 투쟁 전개 ②학원자주화투쟁을 이끌어갈 핵심간부의 발굴 ③학자사업의 정형마련 ④일반 학생들에게 의식화 교육 실시 등을 정했다.

서울연구소 통폐합

서울캠퍼스 연구처는 교육부의 연구소 통·폐합 장려와 연구소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로 연구소 통·폐합을 추진중이다.

연구처는 현재 서울캠퍼스의 30개 연구소를 19개의 연구소로 축소하기 위해 각 연구소에 공문을 보낸 상태이다. 또 이 과정에서 각 연구소의 의견을 수렴하는 조율과정을 거쳐 오는 10월말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연구소 통·폐합은 대학종합평가의 연구소 연구비 지원 항목에 의해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김옥자 교수 등 5명 정년퇴임

김광석 교수

김정현 교수

원병오 교수

신유항 교수

김옥자 교수

교무과에 따르면 김옥자(성악)교수를 비롯한 서울캠퍼스 4명, 수원캠퍼스 1명의 교수가 8월 31일자로 정년퇴임했다.

퇴임교수 중 원병오 교수, 신유항(생물)교수, 김옥자(성악)교수는 명예교수로 추대되었다.

명단 및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생년월일, 출신대학, 최종학력 순이다)

▲김광석(29.3.10,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고려대 경제학 박사)

▲김정현(29.4.17, 서울대 약학과, 일본 도오호쿠대학 환경관리학 박사).

▲원병오(29.5.19, 경희대 생물학과, 일본 홋가이도대학 동물분류학 박사)

▲신유항(29.6.8, 경희대 생물학과, 일본 류슈대학 응용곤충학 박사)

▲김옥자(29.8.5, 서울대 음대 성악과, 이태리 St.Cecillia대 성악석사)

수원 2학기 복지장학생 선발

복지 아르바이트생도 모집

수원캠퍼스 인권복지위원회는 2학기 복지장학생을 오늘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인복위에서 배부하는 복지장학금 신청서와 생활보호대상 증명서(대상자에 한함), 94년 상반기 학부모 재산과세 증명서, 94년 상반기 미과세 증명서(재산세가 없을 경우) 재해사실 증명서(94년 재해에 한함, 대상자에 한함), 주민등록 등본,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등이다.

선발기준은 생활보호대상 증명서나 재해사실 증명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무심사로 선발하고 다른 신청자는 학부모 재산과세와 성적 등을 심사하여 선발한다.

또한 인권복지위원회는 오는 16일까지 복지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한다.

제출서류는 복지장학금 신청서와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이며 아르바이트 내용은 선전물 제거, 주차단속, 연구조사, 강남역과 수원역 승차장 질서유지 등이다.

급료는 월 40시간 기준으로 시간당 2천5백원인데 강남역과 수원역 승차장 질서요원은 시간당 3천원이다.

박승환군 자대 대의원장

지난 9일 열렸던 자연과학대학(이하·자과대) 101강의실에 있었던 자과대 대의원장선거에서 박승환(유전·4)군이 당선됐다.

자과대 공간증축문제의 해결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토대마련, 학생회 사업감사의 혁신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어 단독출마했던 박군은 자과대 대의원 총 16명중 9명이 참석해 찬성 8표로 당선이 확정됐다.

고내단신

정도 무술연구회 창단

체육분과 동아리인 정도 무술 연구회가 지난 6일 창단되었다.

기존 무술(합기도) 동아리인 백과 함께 활동해 나가게 될 정도 무술 연구회는 진정한 무술인의 길을 제시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여성호신술 강좌 등의 활동을 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6일까지 학생회관 6층 611호실에서 전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한다.

의상학과 졸업작품 발표회

의상학과는 오는 16일 오후 3시, 7시 크라운관에서 '제14회 졸업작품 발표회'를 갖는다.

'OFF GRAVITY'란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작품전은 '일상에서 탈피해 자유롭게 떠나는 여행'이란 주제로 만든 작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문리대 영문과 '성난…' 공연

문리대 영어영문학과 연극부는 존 오스본의 '성난 얼굴로 뒤돌아 보라(Look Back in Anger)'를 무대에 올린다.

오는 23일 5시 30분, 24일 1시, 5시 크라운관에서 공연할 이번 작품은 2차 대전직후 노동당 집권기를 사는 한 영국인의 삶을 통해 당시 정부에 대한 실망을 표현한 것이다.

법대 '법집회' 개최

법과대학은 지난 7일 오전 11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법집회'를 가졌다.

이날 법대동문회를 활성화하고 장학기금 1억원을 조성한 공로로 김종림 전임회장은 감사패를 받았으며, 정태류 신임회장은 법대동문회의 발전방향과 사업계획을 밝히고 장학금으로 4백만원을 기증하였다.

이밖에 성적우수자 표창, 학장훈사, 고시일정 발표등의 행사가 있었다.

'법집회'는 법대전학생, 교수 및 동문이 참석 매학기마다 열리는 행사이다.

취재노트

자유의 땅 그곳은 기숙사(?)

◇…공(工)과 공(公)

공안탄압의 바람이 한창 불고 있는 요즘 공(工)안(內)에서도 탄압의 회오리가 거세다는데.

노트子 알아본즉, 공대 모 교수가 공안정권을 비난하는 대자보를 무자비하게 뜯어냈다고.

공(工)안에서도 공(公)안 탄압이 불지 않나 심히 걱정.

◇…사라진 편의주의

고향곁에는 기다림에 지쳐 주저앉은 癡형들이 있다기에 노트子 알아보니.

25개 강의가 수강인원 부족을 이유로 폐강된 줄도 모르고 교수님을 기다리다 지치고, 수강신청정정을 위해 정경대 전산실 앞에서 또 기다리다 지친 癡형들이 그들이더라.

나으리님의 편의주의적 행정에 사라진 학생의 편의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요.

◇…사탕발림은 이젠그만

자본주의에서 시장경제원리가 무너지는 기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사실인즉 4년전 장애인의 무고용률 2%가 올해 1%로 하락 했는데도 분노하는 이가 많다고.

국가경쟁력강화한답시고 사랑발림하시는 위정자님네들. 제발 그러지 마십시요.

◇…자유의 땅 그곳(?)

서천곁에 자유분방의 최첨단을 달리는 곳이 있어 뭇 학우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는데.

다름아닌 기숙사가 바로 그곳이라 외박을 해도, 기숙사안에서 술을 먹어도 간섭하는 사람없으니 얼마나 자유(?)로운가.

기숙사의 모든 분들, 몇몇 가숙사생들의 무질서를 더 이상 방관한다면 기숙사는 방종으로 얼룩질 것이오.

◇…이름뿐인 시계

서천곁에는 시간이 흐르지 않고 멈춰버린 곳이 있는데 노트子 알아보니, 캠퍼스를 통틀어 유일한 벽시계인 공과대 벽시계가 6월말부터 멈추었다는데. 너무도 높고 너무도 힘들다하여 고치기를 꺼려하니 껍질뿐인 시계를 거추장스러운 장식물로 삼으려하느니 차라리 없느니만 못할 것이요.

◇…입장바꿔 생각을 해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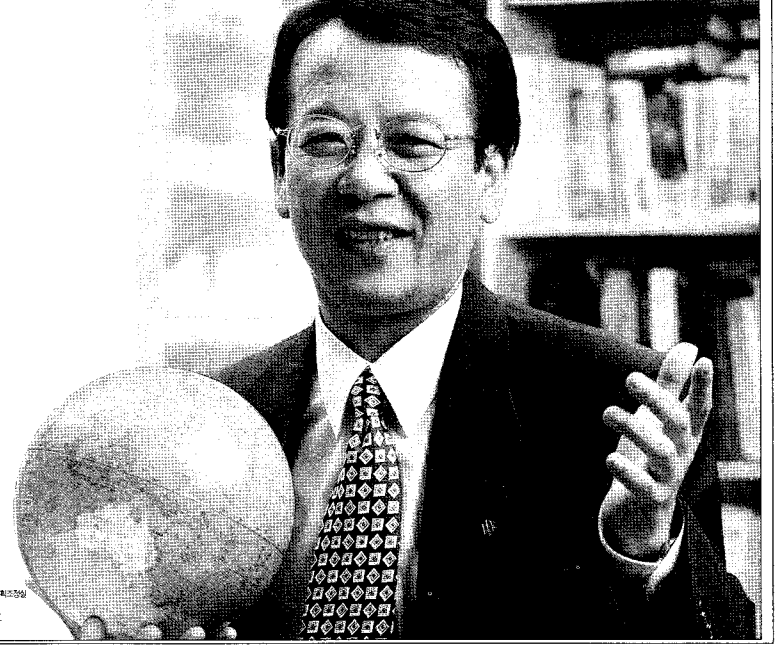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이유로 학교는 입학생 충원을 계획하고 있다는데.

가뜩이나 교수대 학생비율 많고 강의실 비좁은데 신입생 충원이 웬말.

면학풍토 조성위해 줄이는 일이 어렵다면 시설 개선을 한 후에나 충원하시지. 콩나물 시루 만드는 그 높은 뜻 몰라 노트子 한숨뿐.

나의 국적은 지구?

"나의 몸은 92개국의 물과 음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세계인 - 21세기를 열어가는 코오롱의 자화상입니다.

바로 여기 이사람입니다.
아란 - 이라크전의 포연속으로 혼자 들어가 노숙을 하며 양국 병력이 잃은 전투복의 50%를 팔아치운 사람.
우리와는 국교도 없는 시리아에서 3개월만에 국방장관을 '아저씨(uncle)'로 만들어버린사람.
그룹 기획조정실, 국제화추진팀의 임영호이사.
지금껏 주어진 여건대로는 살아본적이 없으며 목표를 세우고 그 성취를 위해서는 자신의 의식까지 바꾸어 살아온 사람.
이미 코오롱맨들에게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철두철미한 세일즈맨으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나의 국적은 지구"라고 당당히 말하며 지구온 92개국을 누벼온 수출의 첨병 - 코오롱의 21세기를 열어가는 세계화의 주역.
바로 내일, 당신의 자화상입니다.

보람의 일터 코오롱

코오롱그룹 기획조정실 국제화 추진팀 이사 임영호